

캐나다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학번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벤쿠버
파견대학	랑가라컬리지	기간	2018.8.5.(토) ~ 2018.8.25.(토)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 주세요. : 랑가라 대학은 변화가 중심에 위치해 있지는 않지만 주변 교통수단이 잘 되어있어 학교가 끝나고 가고 싶은 곳으로 쉽게 이동 할 수 있었다. 학교 규모는 적당했고 시설은 전부 깨끗했다. 캐나다가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많이 사는 만큼 랑가라 대학에도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다니고 있었다. 분위기는 자유로웠고 소란스럽지 않았다.
수업	수업내용, 수업방법, 분반여부,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 주세요. : 처음에 듣기평가를 통해 분반을 한다. 전체 학생 중에 일본인 비율이 가장 많다. 그래서 분반을 했을 때 한국인과 일본인 비율이 적당한 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반도 많다. 나의 반은 한국 2명, 타이완 1명, 일본 12명으로 배정받았다. 초반에는 선생님도 그리고 외부활동(카약 등)을 갔을 때도 우리 반을 모두 일본인 친구들로 생각하고 “캐나다는 ~ 한데, 일본은 어때?” 이와 같은 질문과, 일본어로만 번역을 해주는 등 이런 부분에서 조금 불편했다. 차라리 영어로만 했으면 이런 불편함은 느끼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불편함은 우리가 스스로 한국사람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노력함으로써 사라지긴 했다. 또한 일본인친구들과 타이완친구들이 굉장히 밝고 친절해 쉽게 친해지고 정이 많이 들 수 있었다. 수업 내용은 일상 영어표현, 문화 등 어렵진 않지만 재밌는 수업들로 이루어졌다. 수업방법은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시며 영어로 이야기하는 시간이 많도록 했다. 선생님(Mary)은 무엇이든 세세하게 설명해주시고, 흥이 많으시고, 수업도 즐겁게 이끌어가셨다. 과제는 일주일에 일기 2~3번 정도와 호스트 가족들의 인터뷰 등 간단한 과제가 주어졌다. 15명의 친구들과 3주 동안 함께 하면서 정도 많이 들고,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Activity	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y에 대해 서술해 주세요. - Activity 종류, 내용, 준비물, 추가비용 등 카약 : 선글라스, 모자

	해가 강해서 선글라스, 모자는 가지고 가는 것이 좋다. 카약에 두 명 씩 탑승해서 활동을 하는데 바다 한 가운데에 있는 기분이 좋다. 학교에서 오전엔 수업을 받고 오후에 학교버스를 타고 가는데 1시간 정도 걸렸다. 다른 추가 비용은 들지 않는다. 벤쿠버관광 : 조를 짜서 벤쿠버의 다양한 관광명소를 돌아다닌다. 준비물은 따로 필요가 없다. 하지만 기록을 하면서 다니기 때문에 펜이 필요하다. 많은 곳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편한 신발이 꼭 필요하다. 관광명소에 가긴 하지만 기록해야 하는 과제 때문에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물지는 않는다. 아쿠아리움 : 다른 준비물은 필요 없다. 오전에 수업을 하고 오후에 다같이 아쿠아리움으로 이동한다. 근처에 스탠리 파크와 같은 관광명소들이 많으니 아쿠아리움 이후에 그곳을 둘러보는 것이 좋다. 벤쿠버 뮤지엄 : 반마다 진행하는 방식이 다르지만 우리반은 3명씩 조를 짜서 영역을 하나씩 맡아 과제를 했다. 그리고 다음 날 그것을 바탕으로 반에서 짧은 프레젠테이션을 했다. 휘슬러 : 아침 일찍 모여 저녁 늦게 끝이 난다. 곤돌라를 타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는 기분이 좋다. 준비물은 편한 복장과 약간의 돈을 가지고 가는 것이 좋다. 생각보다 춥지 않아서 너무 두꺼운 옷은 필요 없을 것 같다. 가방도 가볍게 하는 것이 좋다.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현지 기후 및 유의점 : 3주 동안 비는 1번 왔다. 여름에 비는 자주 오지 않는다. 그러나 하늘이 항상 안개가 끼있어 맑은 하늘을 보기 힘들다. 맑은 하늘인 날은 정말 기분이 좋을 정도로 하늘이 아름답다. 날씨는 더운 날이 대부분이지만 한국의 여름 날씨 보다는 덜 덥다. 하지만 오후에는 기온은 한국여름날씨보다 낮지만 해가 강해서 상당히 뜨겁게 느껴진다. 가끔 정말 가을 날씨인 날이 있기 때문에 긴팔도 몇 벌 챙겨가는 것이 좋다.
안전	현지 안전 상황 : 치안은 안전한 편이다. 홈리스들이 길거리에 많지만 눈을 마주치지 않으면 전혀 피해가 없다.
숙소	학교기숙사() 홈스테이(o) 외부 숙소() 기타() 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 홈스테이는 어떤 가정에 배정되느냐에 따라 다르다. 내가 배정된 가정은

	개인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주어 방에 키를 각자 주고 가족들은 나의 방이 있는 곳에 자주 내려오지 않았으며, 빨래는 일주일에 1번씩 추가로 할 때에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했지만 일주일에 1번도 충분했다. 빨래는 스스로하고, 자신의 것만 했기 때문에 불편함이 전혀 없었다. 샤워실도 가족들과는 다른 샤워실을 사용하게 해주었다. 가족과 이야기 하는 시간도 많았고, 모든 것이 좋았다. 다만 조금 불편했던 것은 내 방 와이파이가 약했다. 그리고 일본인 친구와 같은 홈스테이 집에 배정되어 같은 층에 다른 방을 사용했다. 전혀 문제가 없었다. 학교를 등교할 때 같이 가는 등의 생활을 했다.
식사	학교식당() 홈스테이() 외부식당() 기타(o) 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 아침은 홈스테이 가정에서 직접 토스트를 구워먹거나, 씨리얼을 먹었다. 점심은 홈스테이 엄마께서 싸주신 런치박스를 먹었다. 저녁은 홈스테이에서 먹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 밖에서 사먹는 경우가 많았다. 3주 동안 밴쿠버 이곳저곳을 다니다 보면 저녁은 대부분 밖에서 사먹는 경우가 많아 넉넉한 돈이 필요하다.
교통	통학방법, 시내교통 관련 학교에서 컴퍼스 카드를 주는데 존1에서는 3주 동안 어떤 곳이든 갈 수 있다. 통학방법은 버스 2번 타고 갈 수 있었지만 시간은 20분 정도 걸렸다. 밴쿠버의 교통은 편리하고 알기 쉽게 되어있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여행자보험	1,858,700	출국 전 사전 납부
쇼핑	600000	
식비	700000	
입장료	200000	
합계	약 150만원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해 주세요.
짐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좋다. 밴쿠버에 가면 사고 싶은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다.

또한 홈스테이 가족들을 위한 자그마한 선물이라도 준비하는 것이 좋다. 그들도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국적인 선물을 준비하면 더 좋다. 휴대폰은 로밍이나 해외 유심 등을 사서 하는 것이 좋다. 돼지코도 2개 정도는 사가는 것이 좋다. 샤워시간은 나의 홈스테이 가정은 자유롭게 두었지만 다른 친구들의 가정을 보면 10분 이내로 정해두는 가정이 많으니 참고하는 것이 좋다. 3주 동안 밴쿠버에 있으면서 생각보다 한국음식이 많이 생각난다. 나도 한국음식 절대 먹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갔지만 한국음식을 상당히 많이 먹었다. 그러니 라면이나 핫반컵반도 필요하면 가져가는 것이 좋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 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캐나다에 있는 3주 동안 정말 행복했다. 홈스테이 가족도 좋은 분들이었고, 반 친구들도 모두 착했다. 홈스테이 가족들은 나의 하루하루의 이야기를 귀담아 주시면서도 나의 생활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 방에 함부로 들어온다거나, 샤워시간을 줄이라거나 하지도 않았다. 반 친구들은 모두 순수했다. 리액션이 좋고, 밝았다. 수업을 하면서 그리고 활동을 하면서 친구들 덕분에 많이 웃고, 나도 해맑아지는 기분이 들었다. 밴쿠버는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다. 공원, 해변, 산, 시내 등이 모두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면 쉽게 갈 수 있는 곳이었고, 내가 만난 사람들은 모두 친절했다. 버스를 타고 내릴 때 마다 "Thank you"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따라 나도 그렇게 말하니 절로 기분이 좋아졌고, 버스운전사의 기분 좋은 웃음을 보면 우리나라도 그랬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밴쿠버에서 식당을 갔을 때나 상점에 갔을 때나 기분이 나빠서 나왔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나 자신만 즐거우면 나의 기분을 망칠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도시였다. 다만 마리화나 냄새가 길거리에서 자주 맡을 수 있다는 점이 불쾌했다. 학교는 3시에 끝났다. 3시 이후부터 통금시간인 10시 30분 까지 밴쿠버의 많은 곳들을 돌아다녔다. 3주가 짧게 느껴질 정도로 밴쿠버의 생활은 좋았다. 우리 대학의 다른 해외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지원해보고 싶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우리 반 친구들과 랑가라 대학에서
함께 찍은 사진이다.



휘슬러에서 곤돌라를 타고 있는
사진이다.



디스커버리 밴쿠버를 하며 찍은
사진이다.



아쿠아리움 앞에서 반 친구들과
선생님과 함께 찍은 사진이다.



벤쿠버 박물관에서 조원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다.



클로징 세레모니 때 우리반 친구들과 함께 "YMCA" 춤을 춘 사진이다.